

### 강주형 기자의 너나들이



■ 약속은 깨뜨리라고 있는 것? ①

## 애 반장 선거만도 못한 어른 선거판

약속(約束)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이라고 정의 돼있다. 여기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등장한다.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불)특정한 미래에 무엇인가에 대한 서로의 행동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개인 간의 약속이 깨지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경중을 따질 필요도 없다. 그냥 그들이 해결하면 그만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단체의 약속은 어떠한가? 아마도 개인의 약속이 틀어지는 것보다 비중이 조금 더 클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필자가 왜 '약속'을 언급했을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해본다. 지난 12월6일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회장 선거(이하 협의회장 선거)'가 치러졌다. 그러나 이 선거는 치러지기도 전에 '파행'을 거듭한 사람들 덕분에 이미 눈물겨운 모양새였다.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한모 수석부회장이 돌연 사퇴하며 협의회장 자리를 둔 싸움의 시작으로 평택북부지역 두 사람이 입후보 했다. 입후보자는 이병철 전 바르게살기운동 중앙동위원장과 박종화 전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사무국장이다.

이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꽤 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이들의 파행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박 전 사무국장은 "이 전 위원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며 "당신이 출마하면 들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선후배간의 구두 약속이었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오자 이 약속은 깨졌다. 이 전 위원장이 협의회장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을 보장받는 형태로 회원들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동의 되어왔다.

또 권역별로 돌아가며 회장을 맡는 것 또한 그러했다. 사안이 그러하니 협의회장선거에 입후보한 두 사람

중 승자가 협의회장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 었다.

그래서 이들은 왕좌를 가리는 자체 선거를 벌였다.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장 선거가 북부지역에서 치러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전위원장이 박 전 사무국장을 이겼다. 하지만 패자의 이의투표권 없는 자의 참여 등재기로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 둘은 재선거를 치르기 전 서약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까지 했다. 물론 서약서는 '결과에 승복하고 패자는 승자를 돕겠다'는 뻔한 내용이다.

재선거 역시 결과는 같았다. 이 전 위원장의 승리였다. 그런데 박 전 사무국장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뻔한 서약서는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전국에 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민의 정신혁명을 선도하는 국민운동단체'로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과 모든 국민이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해 민주적·문화적 국민의식을 함양하고 공동운명체로서의 국민 화합으로 사회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설립이념을 가지고 있다.

또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바른 사회를 만들며, 사회의 도덕성 회복운동에 앞장선다는 행동강령을 이행하기위해 대부분의 회원들이 애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평택지역은 왜 이렇까. 이번 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가 가진 기본이념과 설립취지, 행동강령에 부합하는지 되묻고 싶다. 감투에 눈이 멀어 '약속'을 쉽게 깨뜨리는 사람들이 순수 봉사단체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것인지도 이들을 믿고 따라야 할 회원들의 마음은 어떨지...

사회의 도덕성 회복운동에 앞장선다고 외치는 분쟁 당사자들은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못나게 살고 있다'고 감히 단언해 본다. 이러한 사태를 미리 진화하지 못한 현 협의회장도 반성해야 한다. 단체의 수장으로서는 내부갈등을 치유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무능력을 입증한 결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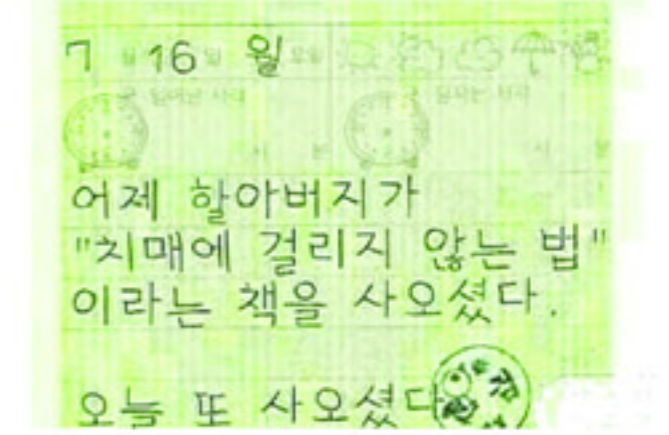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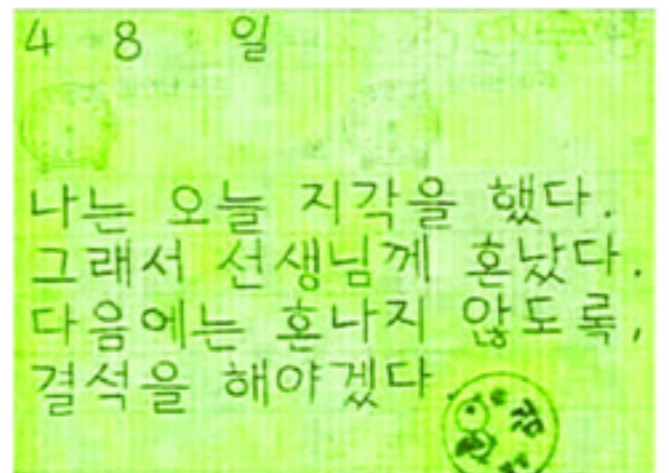
△3년차에는 '마을을 디자인하다' △4년차에는 '삶을 디자인하다'로 예술꽃 씨앗을 뿌리고 새싹을 틔워 가꾸고 퍼뜨리는 활동을 통해 △디자인의 철학 △디자인의 기초 △디자인융합교육 △전시회 △캠프 △진로디자인 △동아리활동 △문화예술 관람 △학교 공간 디자인하기 △마을 디자인하기 등 디자인과 관련해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전문 강사와의 팀티칭수업 및 방과 후 활동을 다양하게 펼칠 계획이며, 디자인 교육을 위한 전용 '예술실'도 꾸밀 예정이다.

이선환 교장은 "내년부터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을 통해 친구들과의 협력적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친구, 학교,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며, '인성꽃, 창의꽃, 예술꽃'을 피워 인류문화를 심미적으로 향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움으로써 행복한 삶을 디자인하길 기대한다"며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거점 학교로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 ■ 황인원의 興於詩

안녕하세요. 이번 달 시는 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기상천외한 답입니다. 재미와 함께 반전의 묘미를 생각해보시지요.



#### 반전의 묘미

창의 방법 중 역발상이 있습니다. 역발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전에는 사고의 반전이 있고 현상의 반전이 있습니다. 사고의 반전은 기존의 상식이나 지식을 기반으로 한 사고를 확 틀어버리는 것이고, 현상의 반전은 우리에게 보이는 현상 중 예측을 무너뜨린 상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 다 기존 상식이나 지식, 그리고 예측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방법은 유머 기법으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이의 글이 그렇습니다. 지각을 하면 상사나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새벽같이 나와서 지각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예 인가했답니다. 사고의 반전입니다.

할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고민이었던 모양입니다. 치매 안 걸리는 책을 사서 보기로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미 치매에 걸린 것일까요? 어제 사온 책을 오늘도 또 사왔네요. 아이는 그 모습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현상의 반전입니다.

이것이 동심입니다. 어른은 이런 동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문제는 창의력이 좋아지면 상상을 잘해야 하고 상상을 잘하려면 동심을 보존해야 합니다. 동심을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보존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상식과 지식의 틀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면 대담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12월 추위가 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황인원 프로필  
△시인/문학박사  
△現문학경영연구원 대표

### 홍원초등학교

## 2018년 예술꽃 씨앗학교 최종 선정

평택 홍원초등학교(교장 이선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 예술꽃 씨앗학교(9기)' 지원사업 운영교로 최종 선정됐다.

'예술꽃 씨앗학교'는 문화예술 소외지역 학생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예술분야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홍원초교는 2018학년도부터 운영하게 될 '예술꽃 씨앗학교'로 1년에 6000만~8000만 원씩 4년 동안 장기적으로 지원받게 됐다.

홍원초교는 '생각 자립터에서 행복을 디자인하는 무지개 예술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8학년도에는 △1년차로써 예술꽃 씨앗을 뿌리는 첫 단계로 '디자인을 배우다'라는 목표를 시작으로 △2년차에는 '학교를 디자인하다'